

재점검의 달  
선교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순종이 어려운건  
내가 너무 많아서는  
아닐까?

# “민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민음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June 19,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12:1-14 <b>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인생</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구 민 집사, 오정은 집사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3, *4절
살과 세상으로	* 찬 양 - 이 땅의 향무함을 보소서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목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전서 1:1-10

감사와 기도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 시편 127:1-2**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기억하자. 가족들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했다. 성전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가 되었다.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한다.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헤아려보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인생을 인도하셨고 자신과 가정을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나누도록 하셨다. 그럼에도 때론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뭔가가 많이 부족한 것처럼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지금까지 받은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축복의 인생임 고백하고 감사할 때이다.

###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인생 / 출애굽기 12:1-14

하나님은 유월절을 계획하셨다.

공포하셨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히 들었다.

순종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인도를 온전히 믿으면, 인생은 아름답다.

###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인생 / 출애굽기 12:1-14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요셉에 이어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 430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큰 민족으로 성장했었다. 노예 생활의 고통을 넘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말씀하신다. 바로의 불순종으로 재앙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재앙에 앞서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던 달을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정하시고, 10일에 어린양을 준비하여, 14일 저녁에 양을 죽여 그 피를 출입문에 칠하고, 그 고기를 구워서 가족과 함께 먹게 하셨다. 이 날 밤, 출입문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모두 죽게 되기 때문이었다.

바로와 압박으로 삶이 더 어려워질 때, 모세를 저주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간다.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가정의 장자는 모두가 살게 된다. '유월' 즉 '장자의 죽음이 건너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래된 연유이다.

우리에게도 결혼기념일이나 첫 아이의 생일 같은 중요한 날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경험한 날은 우리의 유월절과 마찬가지로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새 언약의 성만찬을 지킨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완전한 유월절의 피, 예수님이 영원한 유월절의 어린양이 되신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위해 독생자를 속죄의 양으로 세상의 보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 전해들은 복음을 깨달고 믿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계획하시고 명하셨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였던 모세와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의 표상이 되어야 한다.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바로의 속박에서 건지신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조급함을 초월해야 한다. 그것이 여유로운 인생의 비결이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시간표를 만들자.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중심이 돼 하루의 시간표, 그리고 내 인생의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삼과 신앙

### 홀로 주님만 원하는 시간 가져보기

너무 놀라지 말자.  
누구나 문제를 만난다. 그리고 홀로된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어려움이든 홀로 맞게 된다.  
누군가 대신 당해줄 수 없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을 대신해서 입대해줄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나 대신 병에 걸려 아파할 수 있겠는가?

외롭다는 것은 고통을 전제한다. 누군가 홀로된 이유는 고통과 관련 있다.  
그런데 한번 주위를 둘러보라. 세상은 홀로선 사람들로 가득하다.  
고통은 도처에 있다.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이다.

개인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조차 사회적 문제 때문에 불안해한다.  
시대의 변화상은 너무 빠르다. 마치 급류에 휘말린 해변의 여행객 같다.  
거센 물결에 갑자기 휩싸인다면 누구든 허우적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두어야 한다.

홀로 있는 시간이 이와 같다. **앞으로 닥칠 인생의 급류를 미리 준비하는 시간이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목회자라면 더욱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사역 현장에 들어가 처음 만나는 문제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허우적대기 십상이다. 그러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다져진 마음은 쉽게 방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의 말에 동의한다면,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에  
당신도 답해보길 바란다.

**언제 하나님을 독대하겠는가?**  
**하루 중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혹 새벽은 어떤가?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의 경우  
새벽뿐이기에 나는 주로 새벽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홀로 있는 일에 먼저 모범을 보이셨다.  
그분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홀로 기도하시기 위함이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로 피신하셨다. 새벽뿐만 아니라 밤에도 그러하셨다.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 마 14:23**

왜 그분은 홀로 계셨을까? 홀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홀로 묵상해보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는 친밀한 인간관계에 항상  
목말라 하는 연약한 존재다. 어떤 사회에 소속되어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홀로 완전하신

창조자이시다(욥 9:8,9). 그분은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다.  
 무엇에 집중하기 위해 애쓰거나, 군중에 휩싸여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그런 분이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과 장소로  
 가셨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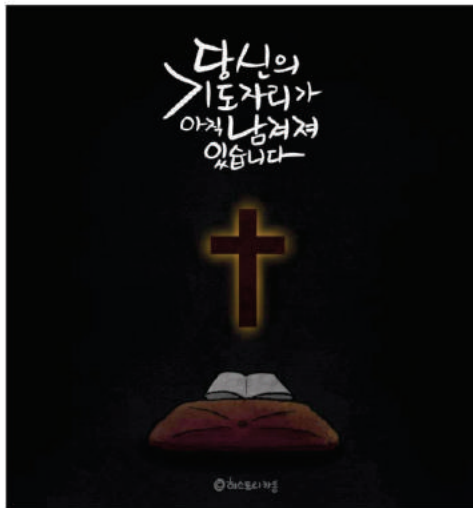
###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공동체성을 정기적으로 간직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무것도 의지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처럼 사역하려면 **예수님처럼 행하면 된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된다. 아무도 없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 들어가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며 예배하면 된다.

우리의 목양자 되신 주께서 새벽에 자신만의 광야를 준비하셨음을  
 기억하자. 종일 제자들과 동행하며 군중에 휩싸여 계시기 전에  
 홀로 계셨음을 묵상하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목양자라면 더욱 그래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양 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독대해야만 하지 않겠는가?  
 농부의 하루가 새벽에 시작되듯, 영적 농부인 우리도 홀로된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전 3:6). 목양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또한 영혼의 밭을 일구는 일꾼이 되도록 홀로 주님만 원하는 시간을  
 드리자. **송준기, 『나 홀로 예배』**



많은 어려움 속에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답하여 온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얼마나 있어 왔는지.

'현실'이란 단어에 우선순위를 앞세워  
 기도의 자리를 뒤로 한 채  
 '아멘'의 고백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은  
 당신이 드렸던 '아멘'의 고백을 잊지 않으심으로

당신의 기도자리를 '아직' 남겨 놓으셨습니다.



4:9:11 14:12:14

“너희가 나의 기도자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나의 기도자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나의 기도자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